

“책임경영 통해 미래차 선도할 것”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올 경영방침 제시… “신차 12개 출시 고객에게 다양한 경험 제공해야”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책임경영’을 올해의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2018년이 현대차그룹이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2일 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년 메시지를 내고 “지난해 중국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등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 2위를 달성하고 최고 수준의 품질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미래기술 혁신 가속화와 경쟁 심화로 자동차산업도 급변하고 있다”며 “책임경영’을 통해 외부 환경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 자동차산업에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권역별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통해 판매 생산 손익을 통합

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을 갖춘 신차 출시를 한 해 총 12개 차종으로 대폭 확대해 고객에게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올 상반기 미국권역을 시작으로 권역별 생산 판매 통합 운영 체제를 갖추고, 고객과 시장 중심의 의사결정을 강화한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제안 등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글로벌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 신형 썬타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출시 등 글로벌 각 지역에서 SUV 라인업을 강화한다. 지역 특화 전략 신차도 대거 선보여 판매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국 시장에서는 준중형 스포티 세단, 준중형 SUV, 엔트리 SUV를 통해 판매를 견인하고, 기아차 ‘씨드’를 통해 유럽시장, 현대차 ‘이온 후속 모델’로 인도를 비롯 신형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자동차 핵심 기술 내재화는 물론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커넥티드 및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자율주행차를 시연할 계획이다.

또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이어 글로벌 주요 혁신 거점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하고, 스타트업 투자 및 개방형 협업을 강화해 미래 신사업 발굴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비롯, 주행거리를 대폭 늘린 코나 전기차, 니로 전기차 등 그룹의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시킨 친환경 모델을 통해 환경차 대중화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매년 전기차를 1차종 이상 출시하는 등 현재 2차종인 전기차를 2025년 14차종으로 확대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3위, 전체 친환경차 시장에서 2위를 공표하리 한다는 목표다. 현대차그룹은 2일 각 계열사별로 주

요 사업장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2일 오전 양재동 사옥에서 윤여철 부회장, 이형근 부회장 주재로 시무식을 열었다.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은 “완성차 사업 고도화 기반의 수익성 제고를 발판으로 해 미래 기술 및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올해 전사적 책임경영 실현을 핵심 기조로, 전 부문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글로벌 사업관리체계 고도화 ▲미래전략 구체화 ▲수익성 중심의 내실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50년을 위한 ‘변화와 도약’의 태닝포인트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이형근 부회장은 “성장 궤도의 재진입과 지속 성장의 발판 마련을 위해 사업목표 달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 내실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사업관리체계 고도화 ▲미래 신기술·사업개발 가속화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활동 강화를 강조했다.

/뉴시스



최저임금 7530원 시대 개막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적용된 2일 오후 어느 거리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시무식 업무 시작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2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새해를 여는 시무식을 열었다.

이날 시무식에서 2018년은 신성장동력사업과 4차산업혁명기술을 물 관리와 스마트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농어업을 첨단산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업무역량을 갖추도록 새롭게 다질 것을 주문하고, 대외적인 신뢰회복과 대내적인 화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형유통업체 납품 계약시 수량 적은 서면 제공해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 반품 예방 기대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에 수량을 꼭 적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은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납품대금의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관련 납품대금 산정 방식도 변경된다.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일 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일액으로 산정 방식이 바뀐다.

기존 기준으로 법 위반 기간이 없는 일회성 불공정행위나 법 위반 기간 구매 행위가 없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발주시점부터 수량을 명확히 적게 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발주 후 상품 수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ijmaeil.com

‘쉐보레 슈퍼 세이프티 페스티벌’

스파크·말리부·트랙스 100만원 할인 제공

쉐보레(Chevrolet)가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 ‘쉐보레 슈퍼 세이프티 페스티벌’을 열고 파격적인 차종별 구입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지역 국내영업본부 백범수 전무는 “판매 주력 차종인 말리부와 트랙스에 이어 최근 쉐보레 크루즈가 국토부 신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1등급을 획득하고 스파크가 경차 유일의 1등급으로 기록되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쉐보레 슈퍼 세이프티 페스티벌을 통해 쉐보레 고객들이 안전뿐 아니라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2017년 생산분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100만원의 현금 할인이 제공되며, 주력 3차종에는 무이자 할부 및 최대 72개월 슈퍼 초장기 할부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72개월 슈퍼 초장기 할부를 통하면 스파크

월 19만원, 트랙스 월 29만원, 말리부는 월 47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2,000cc 이하 쉐보레(대우차 포함) 차량 보유 고객이 말리부를 구입하면 50만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말리부 체인지업’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크루즈는 2017년 생산분 일부에 200만원 현금 할인 또는 최대 6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마련해 판매신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팔라와 올란도, 캡티바는 연중 최고 혜택을 제공했던 지난달과 동일한 혜택을 이달에도 제공해 임팔라는 최대 9%, 올란도 200만원, 캡티바 300만원이 각각 할인된다.

카마로SS는 2017년 생산분 일부에 최대 270만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문산=김판관 기자

11월 온라인쇼핑 첫 ‘7조 돌파’…전년비 21.7%↑

모바일쇼핑 거래액 33.7% ‘급증’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7조551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7%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6년 11월(6조2073억원) 6조원을 돌파한 뒤 1년 만에 7조원대에 진입했다.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체 소매판매액은 36조4849억원으로, 이 중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7%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20.0%를 기록한 뒤 가장 높은 수치다. 온라인쇼핑몰들이 대규모 할인행사에 들어가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손은락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에서 대규모 할인행사가 벌어

졌는데, 국내 쇼핑몰들도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 대규모 할인행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인해 방한가전 거래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관련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가정간편식의 호황도 거래액 증가에 일조했다.

상품군별 거래액을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 온라인쇼핑은 전년 동월 대비 34.4% 증가했고, 음·식료품도 34.4% 늘었다. 아울러 애용품이 무려 83.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거래액 대비 상품군별 비중은 여행 및 예약서비스가 13.6%로 가장 높았고, 의복 13.2%, 가전·전자·통신기기 12.3%, 음·식료품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조7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33.7% 증가했다. 모바일쇼핑이 온라인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7%로 1년전과 비교해 5.8%포인트나 상승했다. /뉴시스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